
《胎產心法》의 개요

《胎產心法》은 淸의 閻純璽가 엮은 産科專門書이다. 이 책은 上·中·下 三卷으로 구성되어 있다. 上卷에는 임신진단을 위한 맥진법, 受胎와 養胎法, 음식과 약물의 금기와 관련된 내용 및 각종 임신중의 질환을 다루고 있다. 中卷에는 분만에 이르렀을 때의 맥진 소견, 保産, 安産, 難産, 분만촉진법, 주의사항 및 분만관련 질환을 다루고 있다. 下卷에는 산후의 맥진 소견, 산후의 처치, 음식과 생활을 통한 조리 방법, 약물을 통한 조리과 관리 및 산후의 각종 질환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인 질병의 정의와 연관된 醫論을 《黃帝內經》, 《金匱要略》, 《脈經》 등의 경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외에 역대의 여러 婦產科學 전문 서적에서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다.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 것들로는 본문에 《千金方》으로 간칭되어 있는 唐代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婦人方》, 《大全》으로 간칭되어 있는 宋代 《婦人大全良方》의 校注本인 明代 薛己의 《校注婦人良方》, 密齋로 표현되어 있는 萬全의 《萬氏女科》, 《準繩》으로 간칭되어 있는 王肯堂의 《女科證治準繩》, 《綱目》으로 간칭되어 있는 武之望의 《濟陰綱目》, 《全書》로 간칭되어 있는 張介賓의 《景岳全書·婦人規》, 《醫通》으로 간칭되어 있는 淸代 張璐의 《張氏醫通·婦人部》, 《尊生》으로 간칭되어 있는 景冬陽의 《嵩厓尊生全書》, 馮氏로 표현되어 있는 馮兆張의 《馮氏錦囊秘訣》 등을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明·淸代의 주요 婦產科 관련 저작의 이론을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뚜렷이 펴면서 간간히 관련 임상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 수재된 처방, 처치법 및 침구치료법은 모두 483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빈용된 처방은 四君子湯 및 六君子湯 관련처방(四君子湯 11회, 六君子湯 12회, 加味六君子湯 3회, 加減六君子湯 1회 등), 補中益氣湯 관련처방(補中益氣湯 22회, 加減補中益氣湯 1회 등), 四物湯 관련처방(四物湯 17회, 加味四物湯 1회 등), 六味地黃丸 관련처방(六味地黃丸 5회, 六味丸 6회, 六味地黃湯 2회, 加味腎氣湯 1회, 加味腎氣丸 1회 등), 十全大補湯 (14회), 歸脾湯 관련처방(歸脾湯 8회, 加減歸脾湯 1회 등), 逍遙散 관련처방(逍遙散 6회, 加味逍遙散 9회 등)과 産後의 여러 질환을 통치하는 生化湯 관련처방(生化湯 24회, 加參生化湯 4회 등) 등이다. 이러한 처방 가운데 특수하게 산후 통치방으로 빈용된 生化湯과

胎產心法

鬱證을 치료하는 逍遙散 관련처방을 제외하면 모두 氣와 血을 溫補하는 처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임신중과 산후에 峻烈한 약물을 사용할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것에 기인할 것이란 것과 함께 李杲로부터 비롯된 補土派의 脈을 이은 明代 溫補派의 계보를 온건한 儒醫의 경향을 나타낸 閻純璽가 계승하고 있는 때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략 이 책이 엮어진 시기는 淸 世宗 雍正 3년(1725년) 경으로 보여진다. 최초로 간행된 시기는 雍正 8년(1730년)으로 淸의 정치가 안정되고 문화와 경제적 융성이 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학문적 임상적 성취와 婦產科學 발전과정에 미친 영향들을 고려할 때 뜻밖에도 저자 閻純璽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 그는 淸의 宣化府(河北省 宣化縣) 출신으로 康熙年間(1654년~1722년)에 進士가 되고 雍正 3년에 廣西左江觀察使가 되었다. 그는 평소 의학에 관심을 가졌고, 아내의 질병을 의사들이 誤治한 것을 계기로 婦產科學에 정진하여 이 저작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의서를 볼 수 있고, 저술을 남길 수 있는 학문적 소양과 출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일종의 儒醫에 해당되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胎產心法》과 閻純璽에 대한 이해와 파악은 매우 제한적인 접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선 그와 함께 과거에 합격하였고 절친한 동료지간이었던 龔健鷗이 남긴 이 책의 서문과 자신의 서문 및 본문에 나타난 단편적인 기술과 인용 문헌들 및 宋, 明, 淸을 거쳐 형성된 일반적 상황과 의사학적 배경을 동원하여 퍼즐을 맞추듯 그와 이 책을 조망하면서 구체화시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크게 婦產科醫史學的 측면과 閻純璽의 개인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의사학적 측면에서는 婦產科學의 醫論과 治方의 실질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초보적인 辨證論治 정신이 강조되기 시작하던 南宋代를 시작으로, 辨證論治의 이론이 정착되는 明代와 근대를 잇는 교량이었던 淸代의 婦產科學의 경향을 조명하면서 그 연계선상에 놓인 이 책에 대한 조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이 책에서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婦產科學의 완결된 체제를 최초로 보여주고 있는 《婦人大全良方》을 중심으로 宋代의 사회적 특성과 婦產科學의 성취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明代와 淸代의 전반성 상황에 따른 의학, 특히 婦產科學 분야의 발전 선상에서 《胎產心法》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宋代에는 의학분야에도 복고 또는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풍조가 파급되고 있었다. 唐나라 때까지의 養生法은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밖으로부터 약을 투입하여 치료하는 對症療法이 채택되고 있었다. 그러나 宋代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溫補의 방법이 등장하여 일

정한 기간 동안 환자의 체내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줌으로써 질병을 자연 치유케 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문화적 르네상스 시대였던 이 시대의 의학저작의 특성은 官의 主導로 이루어진 것이 많은 것인데, 《太平聖惠方》과 같은 대규모의 의학저작들이 간행되었으며, 이러한 대형저작과 함께 《太平惠民和劑局方》과 같이 ‘由博返略’의 경향성을 가진 실용적 저작들도 동시에 간행되었다. 또한 지방 경제단위의 성장으로 각 지방의 유력한 개인에 의한 저작과 발간 역시 활발하였던 점도 특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 저술과 발간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婦產科學의 완결된 체제를 최초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婦人大全良方》의 발간은 眞本을 찾고 보급하려는 당시의 고증적 학문풍토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의학지식의 수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전문의료인에 대한 학문적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 외에 內外陰陽으로 남녀의 구분과, 여성을 집안 내부에 두는 상황에서 집안의 ‘여성명 백과전서’의 개념에 맞는 家藏本으로서의 의학서적을 구하려는 수요에 부합하였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婦人大全良方》은 한의학에 있어 최초의 거의 완전한 婦產科學 전문서로 비록 완벽한 辨證論治의 체계를 갖추는 것에는 미흡한 면이 있고, 이론 역시 제한적인 면이 있으나 婦人科와 產科의 모든 분야에 대해 전모를 갖추고 醫論에 따라 治方을 적용시키는 정돈된 체제를 갖춘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즉 《婦人大全良方》은 婦產科學 발전 과정 중에서 宋代까지의 이론과 임상 성과를 수집하여 후대와 연결시킨 중요한 중간 축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구체적 영향들이 明代에 발간된 여러 婦產科學 전문서적에 투영되었으며, 이는 清代에 이르러 《胎產心法》의 주요 내용을 형성하는 기틀이 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편, 明은 漢族이 몽골족이 세운 元을 멸망시키고 세운 통일왕조(1368~1644)이다. 뒤에 滿洲族이 세운 淸에 멸망되었다. 明代는 중국이 근대화하는 시기와 직접 접촉되는 시대로서 중요한 성장·변혁기로 인식할 수 있다. 明의 太祖는 민생안정을 위해 인구가 과밀한 江南에서 황폐한 江北으로 농민을 이주시키고, 부유층을 首都로 불러들여 경제부흥에 주력하였다. 이로써 사상 최초로 남에서 북으로의 인구이동현상이 일어나고 상공업이 발전하게 된다. 明의 문화정책은 처음에는 復古的 國粹主義와 몽골색의 불식에 주안을 두었으나 후대에는 경제발달, 서민생활의 향상, 도시의 번영, 교육의 보급에 따라 대중적 색채가 짙어졌다. 또한 유럽의 과학사조가 들어와 그 영향도 받았다. 먼저 사상면에서는 몽골인의 압박을 받은 儒學의 전통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永樂帝 때에는 宋나라 朱子學의 부흥에 힘써 宋學을 집대성해서 《性理大全》·《四書大全》·《五經大全》의 注釋書를 勅撰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科學을 위한 참고서가 되어 결과적으로 사상통제적

경향이 나타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기에 王守仁(王陽明)이 宋나라 陸九淵의 학설을 계승하여 실천을 중시하는 人格主義의 理想哲學을 주창, 유학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뒤 그 학설은 陽明學으로서 크게 번져 明末에는 사상계를 주도하였다. 학문 숭상의 기풍도 짙어 成祖 때는 방대한 백과사전인 《永樂大典》 등 많은 勅撰書가 간행되고, 민간에서도 浙江 范氏의 天一閣, 江蘇 毛氏의 汲古閣과 같은 大藏書家가 나와 역대의 正史가 습득되어 간행되었다. 또한 각종 계몽서도 유행되어 학문이 민간에 널리 보급되었고, 지리서와 각 지방의 地方志도 많이 간행되었다.

明代의 醫學은 각 방면에 걸쳐 고르게 발전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추세는 宋·金·元에 발달한 의학이론이 임상을 통해 종합·절충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거치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은 溫補派와 補陰派 간의 논쟁, 命門과 相火에 대한 논쟁, 三焦에 대한 논쟁, 《黃帝內經》 및 《傷寒論》 주석과 관련된 논쟁을 들 수 있다. 《胎產心法》의 처방운용을 검토할 때 閻純璽가 취한 입장은 이러한 논쟁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溫補派에 기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金元四大家 중 李杲(1180~1251)의 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丹溪의 이론을 흡수한 유파라 할 수 있는 明代 溫補派의 一代 宗師는 역시 張介賓(1563~1640)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薛己(1486~1558)가 東垣과 丹溪의 이론을 창조적으로 통합하여 진일보한 辨證論治 체계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溫補派의 유파를 개척하였고, 이와 함께 命門을 강조한 趙獻可(薛己의 영향을 받았으며, 정확한 생물 연대는 불명) 등이 溫補派가 발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溫補派의 입장은 온건한 성품의 儒醫들이 취하기 용이하였던 것으로 인식된다. 또 溫補派의 일원으로 볼 수 있으며, 一代 儒醫學士로 간주되는 인물이며, 庸醫의 실수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계기로 의학을 연구하게 되었던 李中梓(1588~1655)가 있다. 그는 明末의 武官으로 薛己와 張介賓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明代의 婦產科學 분야는 관련 전문저작이 풍부하게 출현한 것을 특색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婦產科學 임상영역에서는 辨證論治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인 항목에 있어서는 자궁의 위치에 대한 묘사, 선천성 생식기 기형과 생리기능의 결함에 대한 이해, 崩漏 치료의 삼단계 방법(治崩三法), 소작법에 의한 제대절단, 피임약물에 대한 연구, 부식법에 의한 초기 유방암의 치료 시도, 매독 치료법의 연구와 임상적용, 기구를 이용한 분만시도 등에서 발전된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봉건제의 강화에 따라 여성에 대한 四診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만 관리는 산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분만술 및 기타 산과적 질환에 대한 발전과 임상대처에 어려움이 여전한 시대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明代의 婦産科 저작으로는 薛己의 《校注婦人良方》, 萬全의 《萬氏女科》, 王肯堂의 《女科證治準繩》, 武之望의 《濟陰綱目》, 張介賓의 《景岳全書·婦人規》 등이 있다. 이러한 책들은 모두 《胎產心法》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529년에 東垣과 錢乙에게서 지대한 이론적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丹溪의 이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薛己가 校注하고, 상당 부분의 처방을 정리한 후 자신의 醫案을 附入하여 엮은 《校注婦人良方》과 이를 답습한 《女科證治準繩》, 《婦人大全良方》을 藍本으로 하고 《女科證治準繩》을 참고한 《濟陰綱目》 등은 모두 《婦人大全良方》으로부터 비롯된 이론적 맥을 이어 《胎產心法》의 형성에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 이와 함께 萬全과 薛己 및 張介賓으로 이어지는 醫家들의 이론적 연관성은 《胎產心法》을 지은 閻純璽의 學派的 淵源이 李杲로부터 비롯된 溫補派에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한편, 淸은 明 이후 滿洲族 누르하치(奴兒哈赤)가 세운 征服王朝(1636~1912)이다. 明나라는 여진족의 여러 부족에 대하여 분열정책을 취하여 견제해왔으나 임진왜란(1592~1598)을 전후하여 만주에 대한 통제력이 이완된 틈을 타서 建州佐衛의 首長 누르하치가 여진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1616년에 스스로 汗의 位에 올라 國號를 後金이라 하고 瀋陽에 도읍하였다. 이 사람이 淸의 太祖이다. 明은 이를 제압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1619년에 사르후의 전투에서 대패하여 遼河 동쪽을 잃었다. 이어 일어난 황타이지(皇太極: 太宗)는 먼저 明과 朝鮮의 연합을 막기 위해 1627년과 1636년에 두 번에 걸쳐 조선에 침입하였다. 또 내몽골로 진출하여 차하르部를 정복하여 大元傳國의 璽를 얻고 1636년에 새삼스레 황제의 자리에 올라 국호도 大清으로 고쳤다. 이 시기에 明王朝의 사회적 모순은 궁정의 당쟁과 농민반란으로 집중되어 나타났는데, 1644년 李自成을 지도자로 하는 농민군은 마침내 北京에 진입하여 明을 멸망시켰다. 이때 농민군을 두려워한 지배계급은 淸軍과 講和하였고, 山海關을 지키고 있던 吳三桂는 자진하여 淸軍을 관내로 안내하여 베이징을 회복시켰다. 太宗의 아들 順治帝는 곧바로 李自成 토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를 湖北으로 몰아내 窮死시킴과 동시에 중국 본토 지배의 대의명분을 획득하였다. 이민족 지배에 대한 저항은 그 후 福王·魯王·唐王·桂王 등 舊王族에 의한 소위 南明의 재건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농민군을 적대시하여 제휴하지 않았으므로 그 명운이 짧아 대세를 회복시키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淸朝에 의한 중국 통일의 적은 중국 정복에 협력하였던 平西王 吳三桂, 平南王 尚可喜, 靖南王 耿仲明 등 三藩이었다. 수 년에 걸친 ‘三藩의 亂’ 진압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明 최후의 遺臣인 鄭成功의 자손이 귀순함으로써 淸은 제4대 황제 康熙帝에 이르러 비로소 전 중국을 통일하였다. 더욱이 康熙帝는 1689년 러시아제국과 네르친스크조약을 맺음으로써 19세기 중엽까지 러시아제국의 東進과 南下를 억제하였다. 또 간간히 분쟁이 일던 朝鮮과의 경계도 확

胎產心法

정하여 1712년에는 백두산에 定界碑를 세웠다. 또 계속되는 雍正·乾隆 兩帝는 중앙아시아의 중가르부(準部)를 토벌하고 이에 따라 青海의 屬領화와 티베트 보호와 평화를 촉진시키면서 1759년에는 중가르부·위구르(回紇:나중의 新疆省)의 지배를 확립하였다. 이리하여 이 3대에 걸쳐 淸朝는 오늘날의 중국 영토의 祖型이 되는 중국 사상 최대의 판도를 확립함과 아울러, 동아시아 거의 전역을 아우르게 되었고, 내정의 충실에도 힘입어 極盛期를 이룬다. 바로 그러한 무렵이 《胎產心法》이 저술되고 간행되던 시기였던 것이다.

淸 王朝의 학문을 대표하는 것은 考證學인데, 이것의 지나친 발달은 이민족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淸 王朝가 취한 사상통제의 산물이었다. 처음에 康熙帝는 反滿思想을 억압하고, 민심 수습을 위하여 明 王朝에 이어 朱子學을 정통적인 官學으로 삼았으며, 스스로도 여러 학문을 익히고 漢文化에 친숙해졌으나 그 지배가 확립됨과 동시에 재야의 反滿的 사상가들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로 임하여 ‘文字의 獄’과 같은 사건이 생기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反滿思想은 지하로 숨고 고전에 대한 실증적·비판적 연구는 고전이 지녔던 격렬한 經世의 정신을 잃은채 학술의 주류가 되었다. 그 결과 《康熙字典》의 편찬과 四庫全書, 古今圖書集成 등 국가 단위의 편찬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淸代 의학의 특징은 金元四大家의 流派를 계승한 明代 의학을 따르면서 고증학적 풍토에 따라 고전에 대한 정리와 근본적 재해석 작업이 빈번하였으며, 溫病學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서구 의학이론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中西醫准通派가 출현한 것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주요 婦產科學 著作으로는 葉桂의 《葉天士女科》, 張璐의 《張氏醫通》, 傅山の 《傅青主女科》, 吳謙 등이 皇命으로 엮은 《醫宗金鑑·婦科心法要訣》, 蕭墳의 《女科經綸》, 亟齋居士의 《達生篇》과 바로 이 책 閻純璽의 《胎產心法》 등이 있다. 이 시기의 서적 중에서는 특히 《張氏醫通》과 生化湯을 수재하고 있는 《傅青主女科》가 이 책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產科學 발전에 대한 《胎產心法》의 구체적 영향은 아직 깊이 연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 잔존해 있는 판본만 30여 종에 이를 정도로 이 책이 널리 보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生化湯을 한 가지 예로 든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胎產心法》에서 生化湯을 지극히 중시하고 產後에 쓰는 처방의 기본으로 삼은 것이 生化湯의 활용을 보편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景岳全書》에서 수재하고 있었으나 그저 잠자고 있던 全氏生化湯을 변형하여 傅山이 生化湯으로 변모시켜 임상에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임상계 전반으로 파급하도록 한 것에 閻純璽가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全氏生化湯, 《傳青主女科》의 生化湯 및 《胎產心法》의 生化湯

藥物 方(主治)	全氏生化湯	傳青主女科의 生化湯原方	傳青主女科의 다른 生化湯	胎產心法の 生化湯原方
當歸	5錢	8錢	1兩	8錢
川芎	2錢	3錢	3錢	4錢
桃仁	10粒	14粒	-	10粒
炙甘草	5分	5分	-	5分
乾薑黑	3分	5分	-	4分
白朮		-	1錢	
香附子		-	1錢	
熟地黃	3錢	-	-	

요약하면, 이 책은 南宋代 陳自明의 《婦人大全良方》을 재편집하고 주석한 《校注婦人良方》을 비롯하여 明·清代의 주요 婦產科學 관련 저작의 醫論과 處方을 임상 실제에 따른 실용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명료히 제시한 특징이 있다. 이것은 宋代 婦產科學의 精華인 《婦人大全良方》과 이를 계승한 《校注婦人良方》 및 《濟陰綱目》과 李杲의 《脾胃論》 등에서 영향을 받아 李杲, 朱震亨 및 錢乙의 이론을 수용한 薛己와, 薛己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張介賓의 의학이론에서 학문적 淵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萬全의 이론과 처방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 萬全 역시 李杲의 이론을 계승한 溫補派 醫家の 일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清代의 저작 중에서는 張璐의 《張氏醫通》과 生化湯을 수재한 《傳青主女科》의 醫論과 처방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婦人大全良方》의 產科와 관련된 부분과 金元四大家 중 補土派의 영향을 받은 醫家들을 중심으로 한 明代 著名 溫補派 醫家들의 產科와 관련된 辨證論治 이론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면서 清代의 저작에 포함된 이론과 처방을 보충하여 閻純璽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실제 임상에 맞게 闡發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 저자 閻純璽의 개인사적 측면에서 이 책을 살펴보면, 의학연구와 저술이 張仲景이나 李仲梓와 같은 비극적인 개인사의 극복과정이라는 유사점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張仲景의 《傷寒論》 저술 계기처럼 처절한 집단적 가족 비극사에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胎產心法》은 대를 잇지 못하고 습관성 유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아내를 지켜보던 家長의 고뇌와 의사의 誤治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產科學에 대한 연구와 임상실천으로 극복하면서 만들어진 슬픔을 승화시킨 결정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등장인물은 불과 3인에 불과하다. 雍正 3년(1725) 날짜의 雍正 年間 刊行本의 서문을 쓴 龔健颺과 자신의 소회와 경과를 간략히 서문에 남긴 閻純璽, 그리고 습관성 유산을 반복하다 분만후의 誤治로 사망한 그의 비극적 아내가 그들이다. 龔健颺은 서문에서 저자와 같이 進士에 급제하였으며, 절친한 동료로 연배가 비슷한 듯한 어투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것은 閻純璽가 공무에 근면하며 유능한 관리였으면서도 婦產科學에 정진한 자세를 엿보게 한다.

이 책에 나타난 閻純璽의 경력은 淸의 宣化府(河北省 宣化縣) 출신으로 淸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융성기를 맞기 시작하는 康熙 年間(1654~1722)에 進士가 되고, 습관성 유산으로 고생하던 아내가 임신한 어느 날에는 오늘날의 上海 大通橋를 통해 100만석에 이르는 군량미를 수송하는 책임을 맡은 ‘奉差督運’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雍正 3년에 ‘廣西左江觀察使’가 되어 관서에서 이 책의 서문을 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의 저술과 발간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1716년 동짓달 무렵에 일어난 아내의 사망이 저술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고, 관직생활과 임상경험을 통해 인생에 대한 관점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안정기에 접어든 장년기 후반이나 초로기에 이 책을 완결하고 발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의 서문에 “임신과 분만을 다루는 분야는 집안의 대를 잇는 것과 연관이 있고, 두 목숨이 관련된 일이라 더욱이 醫道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때문에 方書를 널리 모으고 날마다 先賢들의 유명한 醫論을 얻어서 그 오묘한 이치를 탐구하며 고찰하고 경험하며 생각하고 익히기를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라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30년 간의 의학 학습’이라는 언급은 평소에 의학에 대한 그의 관심이 깊었고 이를 바탕으로 아내의 잦은 유산에서 경험한 좌절과 庸醫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의학공부에 정진하는 계기가 강화되었으며, 死胎를 분만한 아내에 대해 무능한 의료진들이 誤治하여 아내가 사망함으로써 저술을 통해 세상에 대해 경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내와 관련된 追憶式 醫案의 내용에 의하면, 奉差督運으로 재직할 때 아내가 낫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달려가지 않고 ‘速用人參救脫’이라는 치료방침을 전해주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의사가 산후에는 인삼을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고집할 것이 염려되어 다른 사람을 보내 물었더니 과연 생각했던 그대로였고, 또한 거듭해서 蘇子降氣湯을 써서 下痰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가만있을 수 없어 가능한 빨리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한 기록처럼 공무를 계속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무능한 의사들에 대한 불신과 염려로 인해 비로소 급히 근무지를

떠나 집으로 달려가는 일 처리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가 공무에 매우 강직하였으나 소심하고 다소 우유부단한 측면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후 아내의 사망을 애석해하면서 한편으로는 팔자소관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하고 학문적 노력으로 승화 혹은 희석시키는 모습을 볼 때 그가 少陰人的인 체질에 따른 심성과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또한 그의 처방운용을 보건대, 매우 온건하며 溫補의 입장을 추종하고 있는 점과 그가 관직을 하였으며 논리 정연한 저술을 남긴 점을 볼 때 그는 明代 溫補派를 계승하였고, 張介賓이나 李仲樸와 같은 儒醫의 계보를 이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